

전남권 의대 설립방식 '통합의대'로 22일까지 정부 추천

내년 2-3월까지 정원 배정 확보 여부가 최대 관건 주목
김영록지사 "2026년 3월 통합대학 국립의대 개교 목표"
도의회 "도민 모두 의료 혜택 누릴 수 있게 역량 집중"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통합의대 추진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전남도가 오는 22일까지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방식을 '통합의대'로 정부에 추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이는 당초 25일까지 정부에 추천키로 했던 일정을 3일 가량 앞당긴 것으로, 향후 2026년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신규 정원을 내년 2-3월까지 배정받을 수 있을 지 여부가 전남권 의대 신설의 성패를 가를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열어 "통합 의과대학은 (양 대학 사이에) 마지막 다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22일까지 통합의대를 정부에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방식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양 대학이 오늘, 내일 중 교육부에 통합 합의를 제출하고 29일까지 의대 예비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며 "그 전에 가능한 빨리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29일까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양 대학이 밟을 것"이라고 정부 추천 일정을 앞당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의대) 정원 배정받는데 문제가 남아 있다"며 "대학 이름으로 받지만 전남도도 노력해 양 대학과 함께 정원 배정 받는 문제도 적극 나서

겠다. 대통령실, 교육부 등을 방문, 미리 설명하고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통합대학이 통합의대로 예비인증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과제는 내년 2-3월까지 정원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원을 받으면 (의대) 설립 절차가 95% 완료됐다 봐도 문제 없다"고 조속한 의대 정원 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말씀만으로 (의대)가 설립되는 것이 아닌 만큼 대통령실의 협조를 구해 정원을 받는 부분까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양 대학과 전남도가 함께 열심히 하겠다"며 "내년 4월 중 모집 요강 수요 조사 이후 5월 입시요강이 확정되면 의평원에서 설립 절차를 진행해 2026년 3월 개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전남권 의대 정원과 관련, 그는 "정부와 양 대학이 협의해야 할 문제긴 하지만 거점대학교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발표했다가 160명선 정도로 조정했다"며 "어느 정도 선으로 (의대 정원을) 우선 건의할 지 양 대학과 협의해 결정하겠다.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대학 정원 관련 정부도 의뢰계와 어려움



"쌀값 보장하리"…시청 앞 나락야적 18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쌀수입 중단과 쌀값 폭락 대책 마련 등 쌀값 보장 촉구 집회에 앞서 공공비축부 800kg 50포대를 광주시청 앞에 쌓고 있다. /김영근 기자

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건의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대학 통합 절차와 관련, 양 대학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다.

김 지사는 "대학 구성원들의 통합 수용을 위해 양 대학 총장이 잘 협의할 것"이라며 "동·서부 상생과 화합을 위한 대학 통합에 도민들도 환영하고 있는 만큼 대학 구성원들 역시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통합 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재차 약속했다. 김 지사는 "양 대학 통합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좋은 여건이 됐다"며 "양 대학이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대형 국제과제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통합에 따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양 대학이) 글로벌대학에 지정됐기에 통합하더라도 원대 약속한 대로 지원하고 오히려 통합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도 선도적

통합에 노력한 양 대학에 RISE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설립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전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대학 통합' 합의는 전남의 상생 발전과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의회는 "도민의 30년 넘는 오랜 염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양보와 상생의 결정을 이뤄낸 순천대학교 이병은 총장과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에게 감사드린다"며 "통합의대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는 한편, 도민 모두 통합의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영암서 '소 립피스킨' 첫 발생...방역 초비상

도, 감염축 살처분...6개 시·군 일시이동중지 명령

전남에서 올해 들어 첫 소 립피스킨이 발생해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18일 "전날 영암 소재 한 한우농장에서 립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영암 립피스킨 발생 농장은 한우 2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농장주가 피부결절(혹) 등 임상 증상을 확인해 영암군에 신고했다. 이어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과 도 현장조사반(2명)을 해당 농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와 소독을 하고 감염축 선별적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영암군과 인접한 나주시·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 등 6개 시·군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소농장, 관련 종사자와 출입 차량 등에 대해 19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지역 가축시장 15개소를 잠정 폐쇄하는 한편, 공동방제단 99개단과 시·군 보

유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5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소 사육농장 336호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했다. 현재까지 추가 의심축은 없는 상태다.

정광현 전남도 축산식품국장은 "립피스킨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해충방제와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소 립피스킨은 7개 시·도에서 20건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강원 7건, 경기 5건, 충북·충남·경북 각 2건, 대구·전남 각 1건이다. /황시원 기자

전남産 김 수출 3억달러 넘어섰다

수산 단일 품목 최초...'육성계획' 성과
신규 어장 확대 7억달러 목표 달성 박차

전남산 김 수출액이 수산물 단일 품목 사상 최초로 3억달러를 넘어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8억5천만달러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전남이 3억600만달러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2면

전남의 김 수출액은 2010년 1천만달러(전국 대비 7.8%)에 불과했지만 올해 3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국 대비 36%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는 전남도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 '김 수출 3억 달러 프로젝트'(18개 과제)와 혁신적 품질 관

리,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김산업 종합 육성계획'을 세워 시행한 것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유기 수산물 인증 확대와 김 양식어장 인증부표 보급, 위생관리 장비 보급 및 HACCP 시설 지원, 노후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마른김 검사소 구축 등 위생과 품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것도 보탬이 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신규 어장 면적 확대, 외해어장 개발과 기후변화 대비 신 품종 종자 개발, 친환경 김 생산 면적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김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국내외 바이어가 마른김을 전남을 찾아와 구매하도록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운영하는 한편, 대규모 마른 김 전용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김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 김산업진흥원을 구축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강석은 전남도 수산유통공과장은 "김 산업은 종자·생산·가공·수출 등 단계별 부가가치가 높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김 수출 7억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고부가가치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전남 '20·30 교실 포럼' 지상중계 5면
전남대의대 292, 조선대의대 290점 7면
오늘 팔레스타인 잡고 5연승 간다 16면

이 작품은 2024 지역사회 MZ세대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함께 만드는 다채로운 대한민국

한곳에 모이면 어둠
고르게 나누면 다채로움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밀집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지방 자치가 발전하고 지방 연대가 이뤄져야 다채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